

2014 5.4 부활 제 3 주일

제 1 독서 : 사도행전 2,14.22 ~-33 <예수님께서서는 죽음에 사로잡혀 계실 수가 없었습니다.>

제 2 독서 : 베드로 1 서 1,17-21 <여러분은 티 없는 어린양 같으신 그리스도의 고귀한 피로
해방되었습니다.>

복 음 : 루 카 24,13-35 <빵을 떼실 때에 예수님을 알아보았다. >



베이커스필드 성클레멘테성당 : 본당 주임신부 전홍식 요아킴

한국의 상황을 보면 너무 답답하기만 합니다. 우리의 생활 방식이 이미 인내라는 것을 잊어버린것
같이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한국의 방송들은 모든 것을 여과없이 빨리빨리 내보내기만 합니다.

그러다보니 사람들에게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게 하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능력중의 하나는 바로 생각이라는 것인데, 또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미 그것을 던져 버린 것 처럼 느껴집니다. 그냥 누구의 탓으로만 돌려버리는 습관들, 실상 우리 천주교 안에서도 그런 일이 많습니다. 매일 미사를 오면 우리가 내탓이요, 내탓이요, 내탓이요! 하면서 가슴을 세번 때리지만, 그 내탓이요 내탓이요가, **내탓이요!**가 아니라 때로는 **네탓이요, 네탓이요!**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내탓이요! 내탓이요!** 하는 그 안에 담겨있는 진리를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더 힘든 생활을 하지 않나 싶습니다. 다행히도 우리 조상님들의 신앙은 그렇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목숨까지 바치신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과연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신앙은 어떠신지 한번 되짚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제 1 독서와 제 2 독서에서 베드로사도의 이야기가 나오지요. 1 독서는 오순절에 베드로사도가 다른 사도들과 함께, **예수님께서서는 우리들을 위해서 죄없이 돌아가셨고, 우리들을 위해서 부활하셨으며 우리에게 새생명을 주셨다.**고, 또한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생명을 주셨다.**고 선포하는 장면입니다. 오순절에 모였던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제각기 자기들의 언어로 이야기 하지만 서로 이해하는 장면을 보고 난후에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 독서, 2 독서를 들을 때에 그냥 소설처럼 듣는 경우가 많은것 같습니다. 제가 강론을 통하여 누차 말씀 드리지만 이는 소설이 아니라, 즉 꾸며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서입니다. 진짜 일어났던 일을 보았던 사람들이 써 내려간 역사서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그 말씀들을 진정으로 받아들이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달라진다는 것이지요. 오늘 복음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흔 명인가 일흔 두명의 제자들중의 일부인데, 바로 예수님의 기적과 행적을 다 보았고, 또한 그분께서 고통을 받으시고 죽으셨다는것까지 목격한 사람들인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사도들로부터 전해 듣고서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볼 때에, 우리 자신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통감 할 수 있습니다. 제 자신 역시 살다보면 그런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의심이 들때마다 저에게 찾아오는것이 무엇이나 하면 고통과 불안과 포기입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이제 나이도 먹을대로 다 먹었고, 현 장가도 새 장가건, 장가들기에도 너무 늦었고, 또 저같은 나이에 장가들어 자식을 나으면 할아버지같은 아비가 되어 돈도 없으면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모든 것에 자포자기 같은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러나 기도를 통해서, 맞아! 예수님께서 분명히 고통을 받고 돌아가셨고, 부활하셨고 우리에게 새생명을 주셨다고 깨달을때에, 그런 확신이 생겨날 때에는 저는 희망이 보입니다. 추기경님이 주교님들과 함께 모여서 신자분들하고 하신 농담이라고 합니다. 누가 하늘나라에가서 본당 신부님을 찾아보니까 식당에서 써빙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교황님은 어디에 계시냐고 물었더니 배달 나가서 지금 안계시더라고요 합니다. 농담이지만 천당의 식당에서 써빙을 한다고 하더라도 천당이 어딴니까? 농담이겠지만 희망이 있다는 것.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고서는 그 분이 고통을 당하셨고, 돌아가셨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지 않고서는, 확신을

갖지 않고서는 저는 형제 자매님들보다 더 허송세월을 하고 있는 셈이지요. 다시 오늘 말씀으로 되돌아가서 제 1 독서 사도행전에서 말씀하시는 베드로사도는 자기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세번이나 예수님 앞에서 배신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두려움이 있었고 세상 권력 앞에서 무서워 떨던 사람이 어떻게 자기를 죽일 수도 있는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베드로 자신이 보았고 또한 그본것을 이제는 믿었다는 것이지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 것에만 우리의 온 정신을 두고 산다면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은 끝없는 고통입니다. 이 세상 것은 가지면 가질수록 더 고통입니다. 가지면 가질수록 해야 할 일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면 하는일은 똑같이 하지만 자유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진것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 그 분의 것을 나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에 감사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어디에서 오느냐 하면 바로 신앙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바로 신앙입니다.** 엠마오스로 가는 그 두제자가 눈에 콩깍지가 씩어서 옆에 있는 예수님을 못보는 것처럼 우리도 이세상의 어려움과 또 해야 될 일만 생각한다면 예수님을 보고 느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앞의 문제가 더 크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손에 쥐것을 내 놓을 수도 없을터이고 또한 손에 쥐어지지 않은 것을 가지려고 악착같이 사는 것 입니다. 그 삶의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빈 손입니다. 그 빈 손에 어떤이에게는 천당의 티켓이, 어떤 이에게는 지옥의 티켓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하느님께서서는 우리의 모든 어려운 점을 다 아십니다. 우리의 약한 점까지도 다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다만 우리의 마음, 우리의 의지를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천주교에서 말하는 죄는 우리가 저지른 실수를 죄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의지로 마음과 뜻이 담겨서 하는 잘못된 행동을 죄라고 단정 하는 것입니다. 2 독서에서 베드로 사도께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각자의 행실대로 심판하시는 분을 아버지라 부르고 있으니, 나그네살이를 하는 동안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지내십시오.”** 즉 제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계심을 믿고 살라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뜻과 의지를 예수님께로 향하면서 살고 있는가?**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지고 있는 짐들이 가벼워 질 것입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뜻을, 의지를 어디에 맞추고 살고 있는지 이 미사중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께서서는 죽음에 사로잡혀 계실 수가 없었습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2,14.22 ~-33

오순절에, 14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일어나 목소리를 높여 말하였다.

"유다인들과 모든 예루살렘 주민 여러분, 여러분은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내 말을 귀담아들으십시오.

22 여러분도 알다시피, 나자렛 사람 예수님은 하느님께서 여러 기적과 이적과 표징으로 여러분에게 확인해 주신 분이십니다. 하느님께서 그분을 통하여 여러분 가운데에서 그것들을 일으키셨습니다. 23 하느님께서 미리 정하신 계획과 예지에 따라 여러분에게 넘겨지신 그분을, 여러분은 무법자들의 손을 빌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24 그러나 하느님께서서는 그분을 죽음의 고통에서 풀어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죽음에 사로잡혀 계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25 그래서 다윗이 그분을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 언제나 주님을 내 앞에 모시어, 그분께서 내 오른쪽에 계시니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26 그러기에 내 마음은 기뻐하고 내 혀는 즐거워하였다. 내 육신마저 희망 속에 살리라.

27 당신께서 제 영혼을 저승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당신의 거룩한 이에게 죽음의 나라를 아니 보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28 당신은 저에게 생명의 길을 가르쳐 주신 분, 당신 면전에서 저를 기쁨으로 가득 채우실 것입니다.'

29 형제 여러분, 나는 다윗 조상에 관하여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죽어 묻혔고 그의 무덤은 오늘날까지 우리 가운데에 남아 있습니다. 30 그는 예언자였고, 또 자기 몸의 소생 가운데에서 한 사람을 자기 왕좌에 앉혀 주시겠다고 하느님께서 맹세하신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31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견하며 '그분은 저승에 버려지지 않으시고, 그분의 육신은 죽음의 나라를 보지 않았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32 이 예수님을 하느님께서 다시 살리셨고 우리는 모두 그 증인입니다. 33 하느님의 오른쪽으로 들어 올려지신 그분께서는 약속된 성령을 아버지에게서 받으신 다음, 여러분이 지금 보고 듣는 것처럼 그 성령을 부어 주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시편 16(15),1-2 ~과 5.7-8.9-10.11(◎ 11 ~ 참조)

◎ 주님, 당신은 저에게 생명의 길을 가르치시나이다.

(또는 ◎ 알렐루야.)

○ 하느님, 저를 지켜 주소서. 당신께 피신하나이다. 주님께 아뢰나이다. "당신은 저의 주님." 주님은 제 몫의 유산, 저의 잔, 당신이 제 운명의 제비를 쥐고 계시나이다. ◎

○ 저를 타이르시는 주님 찬미하오니, 한밤에도 제 양심이 저를 깨우나이다. 언제나 제가 주님을 모시어, 당신이 제 오른쪽에 계시니 저는 흔들리지 않으리이다. ◎

○ 제 마음 기뻐하고 제 영혼 뛰노니, 제 육신도 편안히 쉬리이다. 당신은 제 영혼 저승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당신께 충실한 이에게 구령을 보지 않게 하시나이다. ◎

○ 당신이 저에게 생명의 길 가르치시니, 당신 얼굴 뵈오며 기쁨에 넘치고, 당신 오른쪽에서 길이 평안하리이다. ◎

<여러분은 티 없는 어린양 같으신 그리스도의 고귀한 피로 해방되었습니다.>

베드로 1 서의 말씀입니다. 1,17-21

사랑하는 여러분, 17 여러분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각자의 행실대로 심판하시는 분을 아버지라 부르고 있으니, 나그네살이를 하는 동안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지내십시오. 18 여러분도 알다시피, 여러분은 조상들에게서 물려받은 헛된 생활 방식에서 해방되었는데, 은이나 금처럼 없어질 물건으로 그리된 것이 아니라, 19 흠 없고 티 없는 어린양 같으신 그리스도의 고귀한 피로 그리된 것입니다.

20 그리스도께서는 세상 창조 이전에 이미 뵈히셨지만, 마지막 때에 여러분을 위하여 나타나셨습니다. 21 여러분은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느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그분을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일으키시고 영광을 주시어, 여러분의 믿음과 희망이 하느님을 향하게 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빵을 떼실 때에 예수님을 알아보았다.>

+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24,13-35

주간 첫날 바로 그날 예수님의 13 제자들 가운데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순 스타디온 떨어진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고 있었다. 14 그들은 그동안 일어난 모든 일에 관하여 서로 이야기하였다.

15 그렇게 이야기하고 토론하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가까이 가시어 그들과 함께 걸으셨다.

16 그들은 눈이 가리어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17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걸어가면서 무슨 말을 서로 주고받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들은 침통한 표정을 한 채 멈추어 섰다.

18 그들 가운데 한 사람, 클레오파스라는 이가 예수님께, "예루살렘에 머물렀으면서 이 며칠 동안 그곳에서 일어난 일을 혼자만 모른다는 말입니까?" 하고 말하였다.

19 예수님께서 "무슨 일이냐?" 하시자 그들이 그분께 말하였다.

"나자렛 사람 예수님에 관한 일입니다. 그분은 하느님과 온 백성 앞에서, 행동과 말씀에 힘이 있는 예언자셨습니다. 20 그런데 우리의 수석 사제들과 지도자들이 그분을 넘겨, 사형 선고를 받아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하였습니다.

21 우리는 그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해방하실 분이라고 기대하였습니다. 그 일이 일어난 지도 벌써 사흘째가 됩니다.

22 그런데 우리 가운데 몇몇 여자가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였습니다. 그들이 새벽에 무덤으로 갔다가, 23 그분의 시신을 찾지 못하고 돌아와서 하는 말이, 천사들의 발현까지 보았는데 그분께서 살아 계시다고 천사들이 알려 주더랍니다.

24 그래서 우리 동료 몇 사람이 무덤에 가서 보니 그 여자들이 말한 그대로였고, 그분은 보지 못하였습니다."

25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아, 어리석은 자들아!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 데에 마음이 어찌 이리 굵뜨냐? 26 그리스도는 그러한 고난을 겪고서 자기의 영광 속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 아니냐?" 27 그리고 이어서 모세와 모든 예언자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 걸쳐 당신에 관한 기록들을 그들에게 설명해 주셨다.

28 그들이 찾아가던 마을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서는 더 멀리 가려고 하시는

듯하였다. 29 그러자 그들은 "저희와 함께 묵으십시오. 저녁때가 되어 가고 날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하며 그분을 붙들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서는 그들과 함께 묵으시려고 그 집에 들어가셨다.

30 그들과 함께 식탁에 앉으셨을 때, 예수님께서서는 빵을 들고 찬미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 그들에게 나누어 주셨다. 31 그러자 그들의 눈이 열려 예수님을 알아보았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그들에게서 사라지셨다.

32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나 성경을 풀이해 주실 때 속에서 우리 마음이 타오르지 않았던가!"

33 그들이 곧바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 열한 제자와 동료들이 모여, 34 "정녕 주님께서 되살아나시어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고 말하고 있었다. 35 그들도 길에서 겪은 일과 빵을 떼실 때에 그분을 알아보게 된 일을 이야기해 주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